

중국어 성어 ‘不亦乐乎’의 다의성 연구

김 영 인*

〈目次〉

| | |
|---------------------------|----------------------|
| I. 서론 | III. ‘不亦乐乎’의 통사기능 분석 |
| II. ‘不亦乐乎’의 의미 분류 | 1. ‘不亦乐乎’의 문장성분 분류 |
| 1. ‘不亦乐乎’의 사전적 의미 | 2. ‘不亦乐乎’의 보어기능 분석 |
| 2. 말뭉치에 기반한 ‘不亦乐乎’의 의미 분류 | IV. ‘不亦乐乎’의 의미 관계 분석 |
| | V. 결론 |

I. 서론

현대 중국어에서 성어는 의미상으로 완전하고 구조적으로 고정된 특징을 가진 정형화된 어휘로, 예로부터 쓰이던 언어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정착된 역사성을 가진 어휘다.¹⁾ 하지만 성어도 긴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의미의 변화를 겪었는데,²⁾ 사전을 통한 어휘 이해가 언어 습득의 주된 경로인 외국인이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선진(先秦) 시기는 중국 고대 역사상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기로, 해당 시기의 문학에서 유래한 성어가 전체 중국어 성어의 약 70% 이상을 차지³⁾하는 것으로 추산되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1) 倪宝元, 姚鹏慈, 《成语九章》, 浙江教育出版社, 1990, 6页.

2) 같은 책, 112쪽.

3) 李德伦, 《成语结构和汉民族社会文化背景》, 《中学语文》 第3期, 2007, 52页.

고 있다. 본고는 선진시기부터 지금까지 2천여 년이 흐르면서 그 시기 문학에서 유래된 성어도 의미 혹은 기능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의 성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논어(論語)》 제1장 제1절에서 유래한 성어인 ‘不亦乐乎’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 学而时习之, 不亦说乎? 有朋自远方来, 不亦乐乎?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论语·学而》)
배우고 제때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 먼 곳에서 친구가 오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다른 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논어를 읽지 않았어도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이 구절에서 유래한 성어 ‘不亦乐乎’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원문과 확연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 两个人开始不亦乐乎地玩起猜拳。(于雷, 《死亡塔罗牌》)
둘은 신나게 가위바위보를 시작했다.
- (3) 我是十五岁以前, 差不多都在南昌, 十五岁以后, 南北各省就跑得不亦乐乎, 比较上苏州多住一点。(张恨水, 《春明外史》)
나는 열다섯 살 전까지는 대부분 난창에 살다가, 열다섯 살 이후에 각지를 종횡무진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쭈저우에 오래 산 편이다.

예문(2)와 (3)의 ‘不亦乐乎’는 원문을 해석하듯 해석할 수 없다. 심지어 예문(3)의 경우에는 원문과 관련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난 것일까?

‘不亦乐乎’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로는 周晓燕(2017)이 유일하다. 周晓燕은 ‘不亦乐乎’의 의미를 ‘不也是很快乐吗?’, ‘很快乐’, ‘不快乐’, ‘程度很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그 중 ‘不快乐’로 해석되는 예문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제각기이며, 통계적으로 해당 의미항목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보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분석한 예문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본고에서 의문을 가진 예문(3)에 해당하는 의미항목을 포괄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의미 변화의 이유나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현상 나열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不亦乐乎’의 말뭉치 예문 전체를 통계적, 통사적으로 분석하고, 분류된 ‘不亦乐乎’의 의미항목 간의 변화 관계를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고찰해보려 한다.

II. ‘不亦乐乎’의 의미 분류

본고는 중국 《현대한어사전(现代汉语词典)》과 《신화성어사전(新华成语词典)》에 수록된 ‘不亦乐乎’의 의미항목과 북경어언대학(北京语言大学) 말뭉치 시스템인 BCC 검색을 통해 수집된 ‘不亦乐乎’의 예문 824개를 본고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아래에서는 본고의 기초 자료를 소개하고, 기초 자료를 근거로 ‘不亦乐乎’의 의미항목을 분류하여 통계적, 통사적으로 분석해보았다.

‘不亦乐乎’의 각 의미항목은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중국어로 두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에 대한 인지가 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不亦乐乎’에서 ‘乐’는 일반적으로 현대 중국어 ‘快乐’로 해석하는데,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즐겁다’, ‘유쾌하다’, ‘신난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중국어로 ‘快乐’의 의미는 어떤 기능 속에서도 동일 선상에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옮기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의미를 세분화하게 되고, 그들 간의 관계가 동의어가 아닌 유의어가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不亦乐乎’가 한국어로 무엇인지는 본고에서 배제하였다. 다만 의미의 이해를 위해 예문은 해석하였지만, 예문의 의미도 원어인 중국어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1. ‘不亦乐乎’의 사전적 의미

현대한어사전과 신화성어사전에서 ‘不亦乐乎’의 의미항목은 두 개로 나뉜다. 먼저 현대한어사전이다.

- ① 原意是“不也是很快乐的吗?”(见于《论语·学而》)
- ② 现常用来表示达到极点的意思:他每天东奔西跑,忙得~。

다음은 신화성어사전이다.

- ① 不也是很快乐的吗?表示十分高兴。
- ② 表示程度过甚,达到难以应付的地步。

위를 통해 알 수 있듯, 현대한어사전과 신화성어사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미항목1은 ‘不也是很快乐的吗?’로, 의미항목2는 ‘程度过甚’으로 통합할 수 있다. 사전의 두 의미항목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예문은 각각 아래 예문(4), (5)와 같다.

- (4) 回家来,发觉鞋带可以系辫子,于是再将另一只拉断,得新头绳一副, 不亦乐乎!(三毛,《什么都快乐》)
집으로 돌아와서 신발 끈으로 머리를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한쪽마저 끊어내어 새 머리끈 하나를 더 얻었으니, 이것도 즐겁지 않은가!
- (5) 前一个月,我为了借书,到一个朋友家去,那朋友正在雇用了不少人手,忙得不亦乐乎。(王任叔,《论“但书”》)
한 달 전에 나는 책을 빌리러 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일손을 여럿 고용해서 매우 바쁜 상태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예문(2)와 (3)은 공교롭게도 사전의 의미항목으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2. 말뭉치에 기반한 ‘不亦乐乎’의 의미 분류

본 장에서는 상술한 예문(2), (3)과 같이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不亦乐乎’의 의미항목을 귀납하기 위해 말뭉치 예문의 의미를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통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말뭉치에서 ‘不亦乐乎’를 사용한 예문을 검색해보면 그 수는 총 1131개(2019년 7월 기준 현대 한어 문학, 간행물 부문 합계)이며, 그중 원문 인용문, 번역문, 중복문을 제외하면 총 824개(문학 66개, 간행물 758개)이다.

본고는 말뭉치 예문을 근거로 ‘不亦乐乎’의 의미항목을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와 변이의미(Variational meaning)⁴⁾ 1과 2,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 1에서 5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원형의미와 변이의미는 핵심 의미인 ‘快乐’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어의 변이 관계,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는 핵심 의미가 퇴색되고 형성된 다의 관계이기 때문인데, 본고의 제4장에서 그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1) ‘不亦乐乎’의 원형의미와 변이의미

사실 ‘不亦……乎’의 ‘亦’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사, 일각에서는 어조사로 보는 등 견해가 다르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두 견해 모두 해당 구문이 부정의문문이라는 것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亦’을 부사 ‘也’로 보아 ‘不也……吗’로 해석하고,⁵⁾ 후자는 ‘亦’을 단순한 어조사로 보고 ‘不……吗’로 해석한다.⁶⁾

4) 본고에서는 단어의 ‘확장 의미’와 구분하여 단어의 문맥적 변이(Contextual variation)에 의한 의미를 ‘변이의미’로 칭했다.

5) 郭锡良의 《古代汉语》, 张之强的 《古代汉语》 등이 대표적이다.

6) 马汉麟의 《古代汉语读本》, 古汉语语法十讲编写组的 《古汉语语法十讲》 등

‘亦’의 갑골문은 ‘𠄎’, 소전은 ‘𠄎’로, 전형적인 지사자(指事字)이며,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亦’의 본의(本義)는 사람의 겨드랑이다.⁷⁾ 후에 부사 ‘也’, ‘又’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亦’을 가차하고, ‘겨드랑이’라는 의미는 ‘腋’을 별도로 만들어 쓰면서 ‘亦’은 가차의로만 사용된다. 갑골문에서 이미 ‘亦雨’, ‘亦徵’, ‘亦出’, ‘亦焚’ 등 ‘亦’을 가차한 용법으로 사용하였고, 금문에서도 서주(西周) 중엽의 목궤(牧簋)에 기록된 내용 중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⁸⁾ 이와 같이 부사 ‘亦’은 역사적으로 이미 명백한 근거가 있으나, 이러한 부사 ‘亦’이 어조사로 문법화하였다는 근거는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본고는 ‘亦’을 부사 ‘也’로 본 郭錫良(1981)⁹⁾ 등의 견해와 楊伯峻《논어역주(论语译注)》¹⁰⁾의 해석에 따라 ‘不亦乐乎’의 원형의미를 ‘不也快乐吗?’로 보았다. 상술한 사전의 의미 항목1은 ‘不也是很快乐的吗?’이지만, 원형의미에서 ‘是……的’과 ‘很’의 해석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순수한 원문의 의미인 ‘不也快乐吗?’를 원형의미로 보았다.

먼저 ‘不亦乐乎’의 원형의미를 그대로 사용한 말뭉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如果坐到硬座车厢, 可以读个通宵, 读个痛快, 虽有拥挤之苦, 但比起增长知识之甜, 还是觉得不算什么, 不亦乐乎? (《人民日报》, 2011)

일반석에 앉으면 밤을 새워가며 신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비좁기는 해도 지식의 성장이라는 달콤함에 비하면 별것 아니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 (7) 川藏才骑了6天, 不光能碰到一群爱车的人, 还能碰到和他一样爱思考

이 대표적이다.

- 7) “亦, 人之臂也。从大, 象兩亦之形。凡亦之屬皆从亦。”
 8) 傅东华, 《字源》, 艺文印书馆股份有限公司, 1985, 910页.
 9) “疑问语气词‘乎’同否定副词‘不’、情态副词‘亦’构成了一种凝固性的反问句式, 这种反问句式语气较为缓和, 意思是‘不也是……吗?’”
 10) “学了, 然后按一定的时间去实习它, 不也高兴吗? 志同道合的人从远处来, 不也快乐吗?”

题的人, 都说人生得一知己足矣, 我这有了一大群, 不亦乐乎! (《人民日报》, 2014)

자전거로 쓰촨-시짱 선을 6일간 운전하니 자전거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알아주는 이 하나만 있어도 족하디는데 나는 한 무리를 만났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형의미로 쓰인 ‘不亦乐乎’는 부정의 문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느낌표와 물음표 같은 문장부호가 뒤따른다. 그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나 불편한 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니 ‘不也快乐吗?’의 의미로 쓰이거나, 한 가지 좋은 일 외에 다른 한 가지의 좋은 일이 또 있으니 ‘不也快乐吗?’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원형의미이지만 말뭉치 예문 824개 중 1.33%인 11개만이 해당 의미로 사용되어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변의미1 ‘不快乐吗?’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8) 欣赏《百园动物币》, 如同领略百园文化, 丰富多彩, 美不胜收, 不亦乐乎! (《人民日报》, 2001)

《백 국의 동물 주화》를 감상하는 것은 나라 백 곳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채로워서 모두 눈에 담기가 벅차니, 즐겁지 않은가!

(9) 聚到一起唱段京戏, 借这种传统的国粹来欢度我们传统的节日, 不亦乐乎? (《人民日报》, 2000)

모두 모여 경극을 따라 부르고 전통적인 민족의 정수를 통해 우리 전통 명절을 기리니, 즐겁지 않은가?

변의미1의 경우에도 원형의미와 같이 부정의문문으로 인해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문장부호가 수반되었지만 ‘亦’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말뭉치 예문 전체의 3.40%인 28개의 예문이 이와 같은 변의미1로 사용되어, 원형의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亦’의 의미가 퇴색되어 선재 되어야 할 문맥적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원형

의미에 비해 자유롭게 출현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서론에서 제시한 예문(2)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변의의미2 ‘很快乐’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10) 下棋的不亦乐乎, 看棋的也津津乐道。(《人民日报》, 1996)

장기 두는 이는 즐겁고, 보는 이는 흥미진진하다.

(11) 两个人你望着他笑, 他望着你笑, 笑得不亦乐乎。(《人民日报》, 1989)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즐겁게 웃었다.

위 예문에서 ‘不亦乐乎’는 부정의문문의 뜻도, ‘亦’의 의미도 보이지 않는다. 원형의미의 제약이 모두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크게 높아져 예문 전체의 20.87%인 172개의 예문이 변의의미2로 사용되었다.

신나거나 즐거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很快乐’의 의미로 ‘不亦乐乎’가 쓰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2) 他知道清朝武英殿里藏过一副铜活字, 后来太监们你也偷, 我也偷, 偷得“不亦乐乎”, 待到王爷们似乎要来查考的时候, 就放了一把火。(鲁迅, 《而已集》)

그는 청나라 때 무영전에 구리활자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후에 태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나게’ 훔쳐 대다가 왕들이 조사할 때 즈음이 되면 바로 불을 질러버렸다.

(13) 现实情况也确实如此, 几乎所有的连续亏损公司都“不亦乐乎”地忙于重组, 而且也总能在最后关头披露重组信息。(《人民日报》, 2001)

실제로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 대부분이 ‘신나게’ 구조조정 열을 올리고는 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위의 예문 속에서 ‘不亦乐乎’는 표면적으로 ‘很快乐’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만, 해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학적 의미로 ‘不亦乐乎’를 사용할 때는 위의 예문과 같이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실제로 신나고 즐거운 일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알린다. 변의의미2의 예문 중 6개가 해학적 의미를 내

포하고 있었다.

통사적으로 보면, 원형의미와 변이의미1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술어로만 사용되지만, 변이의미2의 경우에는 술어 외에도 부사어, 보어, 관형어로 쓰이고 있었다. 술어는 73개, 부사어 7개, 보어 90개, 관형어 2개로 나타났다.

변이의미2가 부사어로 쓰일 때 부사어 표지 ‘地’나 ‘的’이 붙는 예문이 6개, 표지가 없는 예문이 1개로 나타났다.

- (14) 还有这样一位仁兄，买手机不亦乐乎的玩了几天之后，蓦然回首，竟发现口袋里的钱已不够一月生活。(《人民日报》，2003)

또 어떤 친구는 핸드폰을 사서 며칠 동안 신나게 가지고 놀고 난 후에야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문득 발견한다.

- (15) 有媒体说的明白，台当局揣着明白装糊涂，“不亦乐乎”要求美国对台军售，无非是以为这样就可以得到“大佬”保护。(《人民日报》，2014)

한 언론 매체는 타이완 당국이 알고도 모르는 척 미국에 군수 판매를 ‘신나게’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큰 형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이의미2가 보어로 쓰일 때는 보어 표지 ‘得’이 붙는 예문이 가장 많은 77개였고, 그 밖에 ‘个’ 7개, ‘的’ 5개, ‘到’ 1개의 표지가 나타났다. 또한, 앞에 위치한 술어는 모두 동사이며, 가장 많이 나타난 동사는 ‘玩’으로, 37개 예문이 ‘玩+得/个+不亦乐乎’의 형태였다. 그 다음은 ‘吃’ 9개, ‘笑’ 4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讨论, 谈, 讲, 说, 聊, 唱, 跳, 赢, 赌, 抽, (发卡)发, 洗, 学, 看, 做, 挑拣, 走, 逛, 买, 卖, 拍, 抢, 打, 打趣, 骂, 偷’ 등이 있다. 변이의미2의 ‘不亦乐乎’는 이러한 동사들 뒤에서 즐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로 쓰였다.

- (16) 有一天天快亮时徐文化被尿憋醒，发现儿子还在电脑前玩得不亦乐乎。(余一鸣, 《拓》)

하루는 쉬원화가 동이 틀 무렵에 불일을 보려고 잤다가 컴퓨터 앞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 (17) 我们一家3口在短短的3周内整天吃得不亦乐乎。(《人民日报》, 2000)
우리 세 식구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매일 신나게 먹었다.

변의의미2의 관형어 표지는 ‘的’과 ‘之’가 아래와 같이 각각 1개씩 나타났다.

- (18) 真诚的赞, 让我成为不亦乐乎的“斜杠”族。(《人民日报》, 2016)
진심 어린 칭찬은 나를 즐거운 ‘멀티족’으로 만든다.
(19) 那时在家教子的妈妈与几位婶婶们便有了一番不亦乐乎之忙碌。(《人民日报》, 2005)
그때 집에서 아들을 가르치고 있던 엄마와 아주머니들은 행복한 분주함을 느꼈다.

(2) ‘不亦乐乎’의 확장의미

확장의미1은 사전의 의미항목2로 분류된 ‘程度过甚’이다. 확장의미1의 말뭉치 예문에서 ‘不亦乐乎’는 모두 보어로만 쓰였다. 아래 예문들을 살펴 보자.

- (20) 他亲临我校参加了一届运动会, 参观了比赛, 兴奋得不亦乐乎。(莫言, 《三十年前的一次长跑比赛》)
그는 우리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석해서 경기하며 매우 흥분했다.
(21) 7月22日, 住内科215病室的一个女青年患者, 还接到两把鲜花, 她和同室的人都喜得不亦乐乎!(《人民日报》, 1989)
7월 22일, 내과 병실 215호에 입원한 젊은 여성 환자가 꽃다발을 두 개나 받자 그녀와 같은 병실 사람들이 모두 매우 기뻐했다.
(22) 工作忙, 开会忙, 听报告忙, 作检讨忙……真是人人忙得个不亦乐乎。(《人民日报》, 1957)
일하랴, 회의하랴, 보고 받으랴, 검사하랴……정말 저마다 인주 분주하다.

(23) 一些所谓名导名角自诩的大片重戏, 投入巨资利用媒体大炒爆炒, 还没有开拍就被吹得不亦乐乎, 到头来, 让观众眼巴巴地候了一年半载, 结果往往让人大失所望。(《人民日报》, 2005)

명감독과 스타 배우가 자부하는 일명 블록버스터급 영화 중 일부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촬영도 시작하기 전에 심하게 부풀려져서 관객들을 6개월, 1년씩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만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실망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확장의미1은 전체 예문의 68.93%인 568개로, ‘不亦乐乎’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확장의미1은 형용사(566개, 99.64%)와 일부 동사(2개, 0.36%) 뒤에서 정도가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로 쓰일 뿐, 단독 술어로 쓰이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형용사는 ‘忙’으로, 말뭉치 예문 전체의 65.53%인 540개의 예문이 ‘忙+得/得个/个/的+不亦乐乎’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중 ‘忙得不亦乐乎’는 501개다. 그 다음으로는 ‘闹’가 14개, ‘累’와 ‘兴奋’이 각각 3개씩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도 ‘高兴, 喜, 乱, 肉麻, 好, 挤, 吹, 渲染’이 있다.

다음은 확장의미2 ‘很激烈’이다. 해당 의미로 사용된 예문은 전체의 2.79%인 23개이다. 통사적으로는 술어 1개, 부사어 1개, 보어 21개로 나타났다. 확장의미2가 보어로 사용될 때 보어 표지는 ‘个’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得’이며, 모두 동사 뒤에서 치열한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로 쓰였다. 앞에 위치하는 동사는 ‘争’과 ‘打’가 각각 6개씩으로 가장 많았고, ‘吵’가 3개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争论, 辩论, 斗, 拚, 厮打, 转’이 있다.

(24) 诸葛亮的故乡在山东, 这没有什么可争的, 于是人们便在他的隐居地上做文章, 襄阳人说隆中在襄阳, 南阳人说卧龙岗在南阳, 争得不亦乐乎。(《人民日报》, 2003)

제갈량의 고향이 산둥이라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은거지를 두고 트집을 잡는다. 상양 사람은 룡중이 상양에

있다고, 난양 사람은 위룽강이 난양에 있다며 치열하게 다툰다.

- (25) (前一派主张维持自民党、社民党和先驱新党联合的政权框架；后一派则主张保守势力联合。) 两派以日美安保条约为由头唇枪舌战, 不亦乐乎。(《人民日报》, 1997)

(전자는 자민당, 사민당, 선구 신당의 정권 연합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보수 세력 연합을 주장하고 있었다.) 두 진영은 미일 안보 조약을 구실로 삼아 설전을 벌였고 아주 치열했다.

- (26) 各代表团不仅明里暗里不亦乐乎争奖牌, 而且每个参赛队早在出发之前就都把每块奖牌的价码标了出来。(《人民日报》, 2003)

각 대표단은 알게 모르게 치열하게 메달 경쟁을 했고, 경기 참가팀마다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목표로 하는 메달 색깔을 정해두기도 했다.

다음은 확장 의미 3 ‘很忙’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예문 (3)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총 13개, 1.58%의 예문이 검색되었다. 통사적으로는 술어 10개, 보어 2개, 관형어 1개로 나타났다. 보어로 사용될 때는 동사 뒤에서 바쁜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로 쓰였고, 앞에 위치한 동사는 ‘跑’와 ‘干’이었다.

- (27) 每逢放学休假, 他们就在家帮着采收桑叶, 喂养幼蚕, 不亦乐乎。(《人民日报》, 2001)

그들은 항상 방학이 되면 집에서 뽕나무 잎을 채취하고 누에를 키우느라 분주하다.

- (28) 兄弟俩从挖坑、放树苗, 到填土、提水、浇水, 干得不亦乐乎。(《人民日报》, 2000)

두 형제는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는 것부터 물을 길러서 뿌리기가 지 바쁘게 일했다.

확장 의미 4는 ‘很乱’으로, 총 7개 예문이 이에 해당한다. 통사적으로는 술어 2개, 보어 5개인데, 보어로 쓰일 때는 모두 동사 뒤에서 어지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로 쓰였다. 보어 앞 동사는 ‘折腾’이 2개, ‘翻腾, 搅, 弄’이 각각 한 개씩 나타났다.

- (29) 一些人又把他的死视为惊天动地, 什么保护现场, 什么寻找目击者, 传呼负责交通事故的有关单位人员, 真是不亦乐乎。(阎连科, 《鸟孩诞生》)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천재지변인 양, 무슨 현장을 보존한다, 목격자를 찾는다, 교통사고 책임 부문 담당자를 부른다면서 정말 난리였다.
- (30) 徐士秀得意地忙接口说, “近来他那条轮船常常闯祸; 靠近河边, 地势低些的民田, 被它们搅的不亦乐乎。”(茅盾, 《霜叶红似二月花》)
쉬스슈는 의기양양하며 재빨리 말을 이었다. “최근 배 몇 척이 여러 번 사고를 내서, 강변에서 가깝고 지대가 낮은 민전은 그 배들이 휘젓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었지.”
- (31) 一会儿说少了一箱碗, 要在那数十吨物资中翻箱倒柜, 弄得不亦乐乎。(《人民日报》, 1991)
잠시 후 그릇 한 상자가 없어졌다며 물건 수십만 톤 사이에서 상자를 이리저리 헤집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다.

다음은 확장의미5인 ‘很尴尬’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중한사전》 개정판(고려대학교, 2006)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다, 어쩔 줄 모르다, 난처하다’라는 의미항목을 수록하고 있었다. 해당 의미로 쓰인 예문은 아래 두 개로 검색되었고, 모두 슬어로 사용되었다.

- (32) 我们三人同属一案, 都是“516反革命分子”, 被审、被批、被打、被斗, 不亦乐乎, 狼狈不堪。(《作家文摘》, 1997)
우리 세 사람은 ‘516 반혁명 분자’라는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고 비난 받고 맞고 서로 싸워야 했기에 곤혹스럽고 난처했다.
- (33) (军人们在全神贯注地看着场上队员们的精彩表演, 可是, 当旁边的啦啦队们跃起欢呼时, 这群军人们却依然是“目瞪口呆”。) 这样的场面不由得让我们到场采访的记者们不亦乐乎。(《人民日报》, 2001)
(군인들은 경기장 내 선수들의 멋진 개인기에 집중하느라 근처에 있는 응원단이 방방 뛰며 소리를 질러도 ‘목석’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러한 장면은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우리 기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표 1〉 ‘不亦乐乎’의 의미항목별 말뭉치 예문 수 및 점유율

| | 의미항목 | 예문 수 | 점유율 |
|-------|--------|------|--------|
| 원형의미 | 不也快乐吗? | 11 | 1.33% |
| 변이의미1 | 不快乐吗? | 28 | 3.40% |
| 변이의미2 | 很快乐 | 172 | 20.87% |
| 확장의미1 | 程度过甚 | 568 | 68.93% |
| 확장의미2 | 很激烈 | 23 | 2.79% |
| 확장의미3 | 很忙 | 13 | 1.58% |
| 확장의미4 | 很乱 | 7 | 0.85% |
| 확장의미5 | 很尴尬 | 2 | 0.24% |
| 합계 | - | 824 | 100% |

Ⅲ. ‘不亦乐乎’의 통사기능 분석

1. ‘不亦乐乎’의 문장성분 분류

일반적으로 성어의 어법기능은 크게 용언성 성어(谓词性成语)와 체언성 성어(体词性成语)로 구분할 수 있고, 용언성 성어는 동사성과 형용사성으로 나뉜다.¹¹⁾ ‘不亦乐乎’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어-중심어 수식구조의 용언성 성어이며 그중에서도 형용사성 성어로, 문장에서 주로 술어, 부사어, 보어 및 관형어로 쓰인다. 실제로 말뭉치 예문에서도 4개의 문장성분이 모두 나타났다.

不 亦 乐 乎

1 2 (1-2状中偏正结构)

11) 倪宝元、姚鹏慈, 앞의 책, 154쪽.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용사성 성어는 단독 술어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의미항목에서 술어 예문이 나타난 것과 달리 확장의미1은 술어로 나타나지 않고 보어로만 나타났다. 이는 확장 의미1이 독립적으로 문장성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존적 성분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되는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不亦乐乎’의 의미항목별 문장성분 분류

| | 술어 | 부사어 | 보어 | 관형어 | 합계 |
|-------|--------|-------|--------|-------|------|
| 원형의미 | 11 | 0 | 0 | 0 | 11 |
| 변의의미1 | 28 | 0 | 0 | 0 | 28 |
| 변의의미2 | 73 | 7 | 90 | 2 | 172 |
| 확장의미1 | 0 | 0 | 568 | 0 | 568 |
| 확장의미2 | 1 | 1 | 21 | 0 | 23 |
| 확장의미3 | 10 | 0 | 2 | 1 | 13 |
| 확장의미4 | 2 | 0 | 5 | 0 | 7 |
| 확장의미5 | 2 | 0 | 0 | 0 | 2 |
| 합계 | 127 | 8 | 686 | 3 | 824 |
| 점유율 | 15.41% | 0.97% | 83.25% | 0.36% | 100% |

2. ‘不亦乐乎’의 보어기능 분석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보어로 쓰인 ‘不亦乐乎’는 말뭉치 예문 824개 중 83.25%인 686개로, 압도적인 사용 빈도를 보여주었다. 보어 표지 ‘得, 得个, 个, 的’ 등이 수반되었고, 다양한 의미로 나타났다.

말뭉치 예문 중 ‘不亦乐乎’가 보어로 쓰일 경우에 앞에 위치하는 술어를 아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보어로 쓰이는 ‘不亦乐乎’ 앞에 출현하는 술어

| 의미항목 | 술어 | 술어 품사 구분 |
|-------|--|-------------|
| 변의미2 | 玩, 吃, 笑, 讨论, 谈, 讲, 说, 聊, 唱, 跳, 赢, 赌, 抽, (发卡)发, 洗, 学, 看, 做, 挑拣, 走, 逛, 买, 卖, 拍, 打趣, 打, 抢, 骂, 偷 | 동사 |
| 확장의미1 | 忙, 闹, 累, 兴奋, 高兴, 喜, 乱, 肉麻, 好, 挤 (吹, 渲染) | 형용사 (일부 동사) |
| 확장의미2 | 争, 打, 吵, 争论, 辩论, 斗, 拚, 厮打, 转 | 동사 |
| 확장의미3 | 跑, 干 | 동사 |
| 확장의미4 | 折腾, 翻腾, 搅, 弄 | 동사 |

‘不亦乐乎’가 보어로 쓰일 때, 술어 위치에 형용사가 오면 모두 확장의미1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동사 뒤에서 서로 다른 의미항목의 ‘不亦乐乎’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小猫不知为了什么翻腾打闹了起来, 你拍我一下, 我给你一爪, 打得不亦乐乎。(《人民日报》, 2017)

고양이가 무엇 때문에 었치락뒤치락하며 다투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한 대씩 주고받으며 즐겁게 티격태격 하고 있었다.

(35) 原来, “高自联”开会时, 因意见不合, 竟拳脚相见, 打得不亦乐乎。(《人民日报》, 1989)

‘베이징대학교학생연합회’는 원래 회의를 할 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치열하게 싸운다.

위의 예문에서 ‘打’는 동사이며 모두 ‘攻打’의 의미지만, 문맥적 상황에 따라 ‘不亦乐乎’의 의미항목은 긍정적, 부정적 색채가 더해지면서 변의미2와 확장의미2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변의미2는 일부 부정적 의미의 동사 뒤에서 해학적 의미를 유도하기

도 하지만, 주로 긍정적 색채를 띠는 동사 뒤에 나타나거나, 중성적 의미의 동사 뒤에서 긍정적 색채를 이끈다. 그래서 대부분 문맥적으로 긍정적 색채가 나타난다.

반면 확장의미2는 대부분 경쟁과 다툼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 동사 뒤에 출현하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보다 격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문맥적으로 부정적인 색채가 나타난다.

즉 보어로 쓰이는 ‘不亦乐乎’는 문맥적 상황에 따른 색채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의미항목이 선택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해당 문장 색채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IV. ‘不亦乐乎’의 의미 관계 분석

지금까지 말뭉치 예문을 통해 나타난 ‘不亦乐乎’의 의미를 특징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不亦乐乎’의 의미 특징

| | 反问 | 快乐 | 也 | 程度过甚 | 激烈 | 忙 | 乱 | 尴尬 |
|-------|----|----|---|------|----|---|---|----|
| 원형의미 | + | + | + | - | - | - | - | - |
| 변이의미1 | + | + | - | - | - | - | - | - |
| 변이의미2 | - | + | - | + | - | - | - | - |
| 확장의미1 | - | - | - | + | - | - | - | - |
| 확장의미2 | - | - | - | + | + | - | - | - |
| 확장의미3 | - | - | - | + | - | + | - | - |
| 확장의미4 | - | - | - | + | - | - | + | - |
| 확장의미5 | - | - | - | + | - | - | - | + |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反问’과 ‘程度过甚’은 함께 나타나지 않

는다. 또한 원형의미와 변이의미는 모두 ‘快乐’라는 의미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확장 의미는 ‘程度过甚’이라는 의미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 ‘不亦乐乎’의 의미항목 간의 관계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1. 원형의미와 변이의미

우선 변이의미1[+反问], [+快乐]은 원형의미[+反问], [+快乐], [+也]에서 ‘也’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문맥상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원형의미에 비해 자유로워졌다. 즉, 원형의미는 부정적 상황이나 또 다른 즐거운 상황이 선재하고 난 후에 ‘그래도 즐겁지 않느냐’ 혹은 ‘이것도 즐겁지 않느냐’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변이의미1은 이러한 상황이 선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다. 이는 어휘의 일반화(Generalization, Bybee & Pagliuca 1985)¹²⁾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변이의미1은 원형의미에서 ‘也’ 의미의 특수성이 축소되어 사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원형의미와 변이의미1을 다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각적 의미(Perceived meaning)’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문맥적 변이(Contextual variation)’는 단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¹³⁾ 문맥상 원형의미의 출현 범위가 변이의미1의 출현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므로, 원형의미는 엄격한 용법을, 변이의미1은 느슨한 용법을 나타내는 단어의 문맥적 변이 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12) 일반화란 어휘소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을 가리킨다. 의미의 특수성이 적을수록 해당 어휘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사용의 분포가 넓어진다.(이성하, 《문법학의 이해》, 개정판, 한국문화사, 2016, 271쪽.)

13) 임지룡, 《인지의미론》, 개정판, 한국문화사, 2017, 226쪽.

변이의미2[+快乐], [+程度过甚]도 어휘의 일반화 과정을 거친 변이의미1의 문맥적 변이형이다. 즉 변이의미2는 ‘也’의 의미가 사라져 특수성이 감소한 변이의미1에서 또다시 ‘反问’, 즉 부정의문문의 특수성이 감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따른 의미 연쇄(Meaning chain)가 일어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형의미 중의 ‘反问’, 즉 부정의문문의 화용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의문문은 확인 기능, 부탁 및 제안 기능, 명령 기능, 진술 기능, 공손 및 완곡 표현 기능 등이 있는데, ‘不亦乐乎’ 원형의미의 경우에는 진술 기능의 부정의문문으로, ‘강한 긍정적 명제’를 표현하여 즐거움의 정도가 강함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변이의미2 중 ‘程度过甚’은 부정의문문의 여러 가지 기능적 의미 중에서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연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변이의미1은 문장 속에서 원형의미와 마찬가지로 ‘反问’이 가진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문장부호를 수반한다. 하지만 변이의미2에서는 이러한 출현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통사적 분포의 제약이 약화되어 문맥에서 보다 자유롭게 나타난다. 즉, 변이의미1의 출현 범위는 변이의미2의 출현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둘은 변이의미1이 엄격한 용법을, 변이의미2가 느슨한 용법을 나타내는 단어의 문맥적 변이 관계로 볼 수 있다.

2. 확장 의미1과 확장 의미2

먼저 확장 의미1 [+程度过甚]을 살펴보자. 확장 의미1은 변이의미2에서 ‘快乐’라는 핵심 의미의 특수성이 축소되는 어휘의 일반화가 나타났고, 그 결과 핵심 의미가 퇴색되고 기능적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의미항목이다.

이는 내용어가 기능어로 확장되는 ‘의미 탈색화(Semantic bleaching, Givon 1979, Heine 1991)’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음절 내용어인 ‘不亦乐乎’가

완전한 기능어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不亦乐乎’의 확장의미1은 통사적으로 술어로는 나타나지 않고 술어를 보조하는 보어의 기능만 담당하여, 문법적 요소가 약했던 어휘가 문법적 요소가 강한 어휘가 된 것이 의미 탈색화 과정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확장의미1은 핵심 의미 ‘快乐’가 탈색되고 기능적 의미의 확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형의미, 변의의미와 구분되는 다의어다.

다음은 확장미2 [+程度过甚], [+激烈]이다. 확장미2는 주로 형용사와 결합 관계를 이루었던 확장미1이 고빈도로 출현하자, 동사와도 결합이 가능해지는 ‘유추(Analogy)’의 결과로 형성된 의미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언어 내에 있는 유사한 다른 형식에서 규칙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차용(Internal borrowing)’이라고 하기도 한다.¹⁴⁾

특히 확장미2의 경우에는 확장미1에서 이미 의미 탈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의미추가(Semanticization)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확장미2가 경쟁과 다툼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 동사 ‘争, 打, 吵, 争论, 辩论, 斗, 拚, 厮打’와 결합하면서 이들 동사가 심화 되면 나타날 수 있는 ‘激烈’라는 상황적인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확장미3과 확장미4, 5

확장미3 [+程度过甚], [+忙]의 의미 관계는 어휘 내부에서는 찾을 수 없고, 문장 단위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 예문 824개 중, 587개의 예문이 문장 내에서 ‘忙’이라는 어휘와 함께 나타났다. 물론 확장미3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不亦乐乎’ 자체가 ‘忙’의 의미를 대신하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는 ‘忙’이 함께 쓰이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 중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

14) 이성하, 앞의 책, 240쪽.

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말뭉치 예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구문은 ‘忙得不亦乐乎’로, 총 501개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확장의미3은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의해 ‘忙得不亦乐乎’라는 긴 호응 구문에서 ‘忙得’가 생략된 ‘不亦乐乎’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변화는 화용적 추론(Pragmatic Inference)¹⁵⁾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忙’과 ‘不亦乐乎’ 두 술어가 함께 쓰이는 구문이 고빈도로 출현하자,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서 두 술어의 의미가 합류(Merger)되면서 의미견인(Sense attraction)¹⁶⁾이 일어나 ‘不亦乐乎’ 의미의 일부로 ‘忙’이 편입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대화상의 함축이었다가 결국은 실제 의미로 관습화되어 의미추가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장의미4 [+程度过甚], [+乱]은 확장의미3에서 의미의 소실과 추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잃고-얻기 모형, Loss-and-gain model, Sweetser 1988)으로 볼 수 있다. 즉 본래 ‘忙’과 자주 출현하던 ‘不亦乐乎’와 ‘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不亦乐乎’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출현하는 일이 반복되자 상황적 의미인 ‘乱’이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암시되어 있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암시적인 의미가 실제의 일부가 되면서 의미의 잃고-얻기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확장의미5 [+程度过甚], [+尴尬] 또한 확장의미3에서 의미의 소실과 추가가 나타난 경우이다. 확장의미4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적 의미가 추가된 경우라면, 확장의미5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적 의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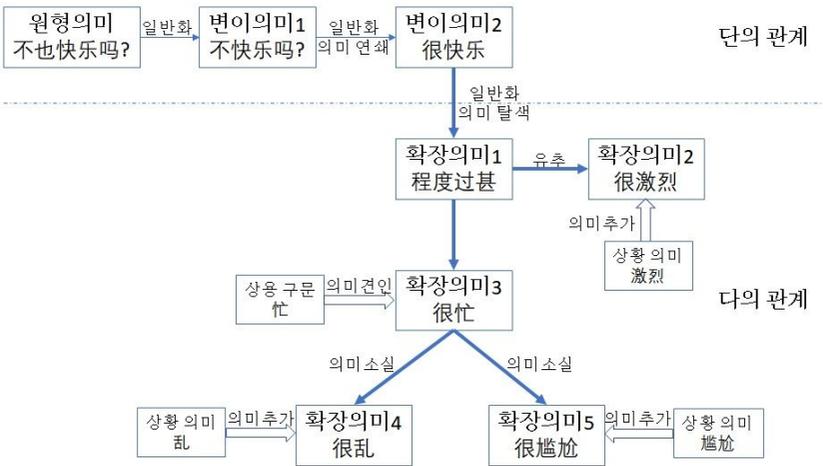
15) 화용적 추론으로 인한 의미 변화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첫 단계에서는 한 어휘소나 문법소가 본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래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청자가 그 언어의 의미와 암시된 의미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암시적 의미가 마침내 실제 의미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과정은 함축의 관습화 혹은 함축의 규약화(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라고도 부른다.(이성하, 앞의 책, 260쪽)

16) 화용적 추론과 의미 변화를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원래의 의미와 추론된 의미와의 합류로, 이를 의미견인이라 한다.(같은 책, 262쪽)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중국어 성어 ‘不亦乐乎’에는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의미가 존재하며, 의미항목들 간의 관계는 인지언어학적 규칙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不亦乐乎’의 의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열은 화살표는 단의 관계의 유지, 진한 화살표는 다의 관계의 확장, 빈 화살표는 새로운 의미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림 1〉 ‘不亦乐乎’ 의미관계망

원형의미와 변이의미1, 2는 단어의 문맥적 변이관계로 나타났다. 세 의미항목은 문맥적 제약이 강한 순서에 따라 ‘원형의미>변이의미1>변이의미2’ 순으로, 원형의미가 문맥적으로 제약이 가장 강하고 변이의미2가 문맥적 제약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어휘 일반화의 결과로, 표1을 통해 실질적으로도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장의미1은 어휘의 일반화와 의미 탈색화로 인해 ‘快乐’라는 핵심 의미가 탈색되고 기능적 의미만 남아 보어라는 부차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의미항목으로 나타났다.

확장의미2는 주로 형용사의 보어로 쓰이던 확장의미1의 기능이 유추되어 동사의 보어로 나타난 의미항목이다. 확장의미3은 ‘忙’과 ‘不亦乐乎’가 고빈도로 함께 출현하면서 두 술어의 의미가 합류되어 의미전인이 일어난 의미항목으로 나타났다. 확장의미4와 5는 확장의미3의 출현 환경에 따라 의미의 소실과 추가(읽고-읽기)가 동시에 나타나 암시적인 의미가 실제 의미가 된 의미항목으로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不亦乐乎’ 확장의미는 ‘快乐’의 의미가 탈색되었기 때문에 핵심 의미 ‘快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형의미의 단의 관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의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不亦乐乎’의 다의 관계 형성은 결국 의미의 탈색과 더불어 기능의 허화가 진행되는 일련의 문법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 중국어의 성어도 일반적인 어휘 처럼 의미 탈색과 의미추가를 통해 의미 변화가 나타나며, ‘덜 문법적’이었던 어휘에서 ‘더 문법적’인 어휘가 되는 문법화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중국어 성어의 의미와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하여 사전작업이나 번역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중국어대사전편찬실,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2006.
 이민우, <다의성과 다의화>, 《언어학 연구》 제14호, 2009.
 이민우, <단어 내부의 의미 관계에 대한 연구>, 《어문론집》 제66권, 2016.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개정판, 한국문화사, 2016.
- 임지룡, 〈다의어의 관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제 28권, 2009.
- 임지룡, 《인지의미론》, 개정판, 한국문화사, 2017.
-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화행〉, 《연구논문집》 제20권 1호, 1989.
- John Lyons(강범모 역), 《의미론1》, 한국문화사, 2011.
- 杨伯峻(이장우, 박종연 역), 《논어역주》, 중문출판사, 2002.
- 傅东华, 《字源》, 艺文印书馆股份有限公司, 1985.
- 郭广敬, 〈古汉语中的“不亦……乎?”句式分析〉, 《信阳师范学院学报》 第2期, 1985.
- 郭锡良, 《古代汉语》, 修订本, 商务印书馆, 1999.
- 韩琳, 张爱萍, 〈《论语》“不亦……乎”之“亦”作用商榷〉, 《山西广播电视大学学报》 第2期, 2001.
- 李德伦, 〈成语结构和汉民族社会文化背景〉, 《中学语文》 第3期, 2007.
- 陆剑明、沈阳, 《汉语与汉语研究十五讲》, 第二版, 北京大学出版社, 2016.
- 倪宝元、姚鹏慈, 《成语九章》, 浙江教育出版社, 1990.
- 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 《新华成语词典》, 第2版, 商务印书馆, 2015.
- 王时燕, 王革, 〈汉语多义成语义项间的关系及多义成因——以《新华成语词典(第2版)》为例〉, 《文教资料》 总第820期, 2019.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 第6版, 商务印书馆, 2012.
- 周晓燕, 〈“不亦乐乎”新解〉, 《语文教学通讯》 第934卷 第3期, 2017.

< Abstract >

Chinese idioms are historical vocabularies which have been inherited for a long time, but the meaning of the word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its oral history. However, dictionaries often do not contain all of these changed meanings.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foreigners who understand vocabularies and acquire languages through dictionarie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idioms.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his study makes ‘Bu yi le hu’ the first target of study in polysemy idioms of Chinese. ‘Bu yi le hu’ is an idiom which comes from the first part of chapter 1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This study, first classified the meaning of ‘Bu yi le hu’, is based on examples which extracted from the corpus and statistically produced figure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xamples of corpus syntactically and examines the semantic relationship in terms of cognitive linguistic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hinese idiom ‘Bu yi le hu’ has other meaning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 dictionary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paration of meanings is re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gnitive linguistics. Through this study, I could see that Chinese idioms like other ordinary vocabularies appear semantic changing through the process of semantic bleaching with semanticization and grammaticalization.

Key Words : 중국어 성어(Chinese idioms), 불역락호(Bu yi le hu), 다의성(Polysemy), 다의 성어(Polysemy idioms), 의미 변화(Semantic change), 의미 탈색화(Semantic bleaching), 문법화(Grammaticalization).

